인문연구 제97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7, No. 1, pp.173~209
http://dx.doi.org/10.21211/JHUM.96.7

상장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교육의 특징과 영향*

채휘균**

〈차 례〉

1. 서론
2. 대한제국시기 근대식 상장
3. 일제강점기 대정 연간 상장
4. 일제강점기 소화 연간 상장
5.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학교 상장이 일제강점기 교육을 강화하는 수단이었다는 점을 밝히는 연구였다. 연구 내용은 첫째, 상장 종류를 조사하고 시기별 상장 종류를 제시하였다. 둘째, 상장의 형식과 구성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밝혔다. 셋째, 상장 내용을 분석하고 특징을 밝혔다. 연구방법은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 상장을 조사·분류한 후에, 상장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교육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087119).

**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일제강점기 상장 형태는 대한제국 시기 상장과 유사하였고, 구성은 제목, 수상자 이름, 수상 내용, 연도, 기관, 직인으로 구성되었다. 상장은 테두리 장식이 일반적이었고, 세로쓰기 방식을 택하였다. 대정, 소화 연간 상장 형식은 대한제국 시기 상장 형식과 유사하였다.

상장 서술하는 언어는 대한제국 시기에는 국한문 혼용이었고, 일제강점기에는 한문·일어 혼용이었다. 서술하는 언어는 일제강점기 교육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수상자 이름도 1940년 이전에는 한문으로 기록되었고 1940년 이후에는 일본식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강화된 식민지 교육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상장의 서술은 우등상의 경우 학업 우등, 학술 우량, 성적 우수 등과 동시에 품행 방정, 조행 가량 등과 같이 성적과 품행을 연관지어 표현하였다. 일제강점기 우등상에서 교과와 품행을 연결하고 있었다. 개근상과 정근상은 성실 및 근면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학교 교육에 참여를 장려하고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일제강점기 후기에는 각종 특별상을 수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종류에는 품행, 근로, 국방헌금 등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강점기 후반 일본의 어려운 상황이 상장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상장은 형식과 내용에서 일제강점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장은 교육 환경과 성격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일제강점기 상장의 형식과 내용이 해방 이후 학교에서 유사한 형태로 답습되었기 때문에 상장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역사적인 검토와 재해석이 필요하다.

핵심어: 학교 상장, 대한제국시기, 일제강점기, 형태와 구성, 우등상, 출석상, 특별상.

1. 서론

대부분 사회에서 상장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치 있는 일로 인식된다. 학교에서 상장은 교육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상장이 사용되었다. 상장은 개인의 능력과 품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공식적 기록하여 제작되고, 상장 수여는 공식적이고 의례적 행위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장은 교육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상장은 인간이 사회조직을 유지하고 결속력 확보가 필요한 시기부터 사용되었고, 학교가 제도화되면서 학교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상장은 사회와 학교 모두에서 구성원들의 기대되는 행동을 유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상장 수여 기준과 의미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상장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장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회나 조직은 개인의 행동을 바람직한 규율로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1] 즉, 학교나 병원이나 군대와 감옥같이 바람직한 규율장치들이 곳곳에 존재함으로 규율에 따라 자기 신체, 몸짓, 행동, 품행, 적성 등을 규범적인 것에 종속시킨다.[2] 이러한 점은 학교의 상장도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상을 시상한다. 학교 상장의 종류에는 성적

---

1) 미셸 푸고 저,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2016, p.281. “작업장, 학교, 군대에서는 미시적 형벌 제도가 만연되어 있다. 시간, 품행, 말투, 신체, 성적 표현 등이 처벌 대상이다.”

2) 위의 책, p.460.

우수상, 개근상, 표창장, 기타 특별 활동상 등이 있으며, 졸업식이나 수료식의 경우에는 학교 이외 기관에서 상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상장은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교육과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거나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식민지 상황에서 학교 상장은 식민통치와 식민지 교육에 적합한 특성을 장려하는 내용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상장은 지배집단에 유리한 특성과 가치를 장려하고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장의 의미는 사회 상황과 학교 교육의 성격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식민지 상황에서 학교 교육은 식민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거나 그 가치를 위해 봉사하는 일을 장려하려고 함다. 그때 학교에서 상장은 식민 지배에 충실한 학생들을 포상하고 장려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푸코가 말하는 규율권력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장이 사회와 교육의 성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면 상장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장이 수여된 시기와 내용과 배경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상장의 의미와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근대교육의 시행과 더불어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근대식 상장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장은 일제 식민지 교육이 시행되면 유사한 형태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교육의 성격이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고 식민지 상황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장 내용과 형식도 교육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 교육은 식민지 초기부터 시행되었고, 특히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에 더욱 강화되었다. 이 시기 학교마다 학생들이 암송해야 하는 '황국신민서사'의 내용은 학생들은 일본제국의 신민이며, 마음을 다해 천황에게 충의를 다하며,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

고 강한 국민이 된다는 것이었다.[3)]

따라서 일제강점기 학교 상장 역시 대한제국시기와는 달리 식민지 교육표에 부합되는 기준과 내용에 따라 시행되었고, 식민지 교육에 합당한 행동을 유도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각급 학교 교장에게 일제 식민지 교육에 공헌하는 이유에서 표창을 시행하였는데, 1935-1940년 사이에 표창된 교육효적자 100명 중 일본인은 81명, 조선인은 18명 외국인이 1명이었다.[4)] 그리고 표창 받은 학교장은 학교에서 식민지 교육에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함으로 식민지 교육을 확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상장은 대한제국시기 상장과 유사한 형태였지만, 그 의도와 내용에서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학교에서 수여된 상장을 검토할 때, 대정 연간, 소화 연간 등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상장이 시상되었다. 물론 상장의 내용에서 우수한 성적과 양호한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성적과 태도 그 자체가 이미 식민지 교육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상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동안 연구가 일제 강점기 교육의 성격을 현장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장에 주목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학교 시상제도를 검토하여 상장 연구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았다. 허만욱[5)]은 상의 개념과 기능 및 윤리적인 측면, 학습과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시상의 실태를 교사와 학생에 대

---

3) 이원호, 『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교육의 역사』, 문음사, 2002, p. 224.

4) 손종현, 『일제 제3차 조선교육령기하 학교 교육의 식민 지배 관행』,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 270.

5) 허만욱, 『학교 시상의 실태와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한 설문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가운데 주목할 점은 상을 주는 태도가 분명하지 않거나 전례에 따라 시상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시상이 무비판적, 무의도적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교육상 유해한 점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교육의 성격에 대한 손종현의 연구는 일제 강점기 학교 교육의 식민지배 관행에 대해서 학교 공문서를 분석하여 지배 관행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지배 관행은 천황숭배, 전시동원, 병참기지화, 사상통제 등과 같은 관행을 밝히고 있다.[6)]

이러한 점에서 일제강점기 학교에서 수여된 상장 종류와 상장의 형식 및 내용을 고찰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실제 상장을 분석하는 새로운 시도의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상장을 통해 식민지 교육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과 일제 강점기 상장이 해방 이후 학교에서 유사한 형식과 내용으로 답습되었음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상장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장이 일제강점기 교육을 강화하는 수단이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시기별 학교 상장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분석하여 시기별 상장의 종류를 제시한다. 둘째, 시기별 학교에서 수여된 상장의 형식과 구성을 분석하여, 상장의 외적 형식과 구성상 특징을 밝힌다. 셋째, 시기별 상장에 사용된 주요 단어와 표현을 분석하여 상장의 내용에 나타난 특징을 밝힌다.

본 연구는 구체적 자료를 상장의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상장을 수집하고 시기별로 분류함으로써 시기별 상장의 특징을 비교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상장에 나타

---

6) 손종현, 『일제 제3차 조선교육령기하 학교 교육의 식민 지배 관행』,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난 일제강점기 교육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자료수집은 박물관과 실제 자료조사와 사이버 박물관에 있는 자료를 검색 수집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상장의 자료

시기	자료 수
대한제국 광무연간	9
일제 대정연간	18
일제 소화연간	56
계	83

상장은 일정한 양식과 내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상장에 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상장의 양식적인 특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고찰한다. 그리고 상장의 내용에 사용된 주요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그 의미와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대한제국 시기 근대식 상장

1897년 대한제국설립 이후 근대식 학교 제도를 도입되고 각급 학교에서는 각종 상장을 수여하였다. 이때 수여된 상장은 근대식 학교 제도에 따른 상장이었으며 그 내용과 형식은 이후 학교에서 수여하는 각종 상장의 표본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시기 상장과 일제 강점기 학교에서 상장의 형식이 유사하였다.

1) 관립외국어 학교의 상장

대한제국 시기 수여된 상장은 상장 외에 상증(賞証), 포증(褒証)이라는 명칭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장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이었다.

1901년(광무5) 관립덕어학교장 이름으로 박재순에게 수여된 상장은 제목, 수상자, 시상 내용, 상품목록, 교사와 교관 성명, 수여 년도, 수여 학교와 학교장 이름으로 구성되었다. 상장 제목은 상증(賞証)이었고, 발급호수와 제목을 표시하고 있다. 외형적 형태는 붉은색 굵은 선으로 테두리를 장식하고 있으며, 상장 상단 가운데 교차 태극기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상장의 기록방식은 오른쪽부터 국한문 혼용으로 세로쓰기를 하고 있으며, 직인이 수상자 이름 하단과 수여하는 학교장 이름 다음에 찍혀있다. 이와 같은 형식은 1901년 같은 해와 1902년 다음 해에 동일 학교에서 동일인에게 수여된 상장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대한제국시기 관립덕어학교는 독일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1898년 9월 15일 문을 열었다. 당시 일어, 영어, 법어, 아어(俄語), 한어학교가 이미 있었고, 덕어학교는 관립외국어학교 중 마지막으로 개교되었다.[7)]

〈표 2〉 대한제국시기 외국어학교 상장

연도	제목	수상자	수여자	비고
光武5 (1901) 7. 4	賞証	住 南署詩洞 朴在淳 年1	外國語學校長 李0桓	상단중앙교차 태극기문양 국한문 혼용
光武5 (1901) 7. 4	賞証	住 南署詩洞 朴在淳 年17	外國語學校長 李0桓	
光武6 (1902)	第一號 賞証	住 中署詩洞 朴在淳 年18	外國語學校長 洪禹觀	

7) 신자토 루리코, 「관립 덖어 학교의 한국인 교관들-근대 조선의 독일어 교육사 재고- 연구」,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제116집, 2017, p. 140.

1901년 관립덕어학교에서 박재순에게 수여한 상장 내용은 수상자 주소와 수상자 이름과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박재순의 주소는 남서시동, 나이는 17세였다. 상장 내용은 박재순이 관립덕어학교 이급(二級)에서 학업이 우등(優等)하여 상품을 준다는 것이다.[8] 이때 상품은 우산, 명함 갑, 대공책, 연필, 묵병, 동국역사 등 기념품과 학용품, 도서 등이었다. 그리고 교사 불야안(佛耶安)과 교관 고희성(高羲誠)을 기록하고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

상장을 받은 박재순은 역관 집안 인물이었다.[9] 그리고 교사 불야한(佛耶安, Johann Bolljahn, 1862-1928)은 일본에서 독일어 교사로 있었던 원어민 교사를 정부가 초빙한 인물이었고,[10] 교관 고희성은 불야한의 학생이었는데 덕어학교 첫 교관이었다.[11] 이 상장에서 표현된 '학업 우등'과 '증서를 수여함'은 이후 상장의 기록에서 전형적인 표현이 된다.

박재순은 1901년 같은 날 관립덕어학교 한문과 학업도 우등하여 상장과 상품을 받았는데, 덕어학교에서 한문과 수업도 병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장을 서술하는 방식은 앞에 받은 상장과 거의 같았고, 상품도 도서와 학용품 등이었다.[12] 다만 교관 부분에

---

8) 1901년 박재순(17세)의 덕어학교 상장 내용: "右ᄂᆞᆫ 官立德語學校二級 學業이 優等이기 左記한 賞品을 施ᄒᆞ니라 雨傘一, 名銜匣一, 大空冊一卷, 鉛筆三, 東國歷史一帙 -敎師 佛耶安 -敎官 高義誠 右証明에 依ᄒᆞ야 此証書를 授與홈이라."

9) 박재순은 1900년 2월 덕어학교에서 수학하였고, 1902년에는 우체학교로 전학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10) 신자토 루리코, 앞의 논문, p. 141.

11) 신자토 루리코, 위의 논문, p. 145.

12) 1901년 박재순(17세)의 한문과 우등상장: "右ᄂᆞᆫ 官立德語學校漢文科學業이 優等이기 左記한 賞品을 施홈이라 大韓地誌一帙, 大韓與地圖一幅 白紙二束, 筆五柄, 墨二丁 副敎官 金鍾0 右証明에 依ᄒᆞ야 此証書를 授與홈이라."

서 한문과 부교관 김종화(金鍾華)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902년 박재순(18세)은 덕어학교 1급에서도 학업이 우등하여 상장과 상품을 받았는데, 외국어 학교장은 홍우관이고, 교사는 불야안(佛耶安), 교관은 진학신(秦學新)이었다.[13]

이때 상장에서 교사는 동일하지만 교관과 학교장은 1901년과 달리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상품은 공책과 연필 등 학용품이었다. 당시 박재순의 나이를 고려할 때 당시 관립외국어학교는 전문적인 어학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임을 알 수 있다.

1905년(광무9) 관립어학교장 이름으로 민재호에게 수여한 상장은 녹색 선 테두리를 하였고, 사방 네 곳에 꽃무늬 장식과 상단에 태극기 문양이 있다. 기록은 국한문 혼용으로 오른쪽 세로쓰기를 하였다. 상장 구성은 발급호수, 제목, 수상자 주소, 수상자 이름과 나이, 시상내용, 상품목록, 수여년도, 수여학교와 교장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대한제국시기 관립외국어학교 상장

연도	제목	수상자	수여자	비고
光武9 3.18 (1905)	第六號 賞狀	住 閔再鎬 年二十七	官立語學校長 李鍾泰	사방 꽃무늬, 상단 가운데 교차 태극기문양

상장 내용을 보면 민재호(27세)가 관립어학교를 졸업하면서 받은 상장임을 알 수 있고, 졸업이 우등하여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다는 내용이다.[14] 민재호의 나이가 이때 27세였으므로 관립어학교

13) 1902년 박재순(18세)의 상장: "右는 官立德語學校 一級에서 學業이 優等이기 左記한 賞品을 施홈이라 - 拱責 - 鉛筆 - 鐵筆管- 墨餠 - 교사 佛耶安 - 교관 秦學新 右證明에 依하야 此證書를 授與홈이라"

14) 1905년 민재호의 상장: "右는 卒業의 優等이기 賞品을 授與홈 物品 萬國地誌一帙 紅格紙一卷 小筆三柄"

에서는 실제 통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어학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상장을 통해서 민재호가 어떤 언어를 학습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이 시기 상장은 근대식 학교와 더불어 탄생하였으며, 이 시기 상장의 형식과 내용이 이후 상장의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장은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교차 태극기 문양을 상장 상단 가운데 부분을 장식하고, 아울러 상장 사방으로 꽃무늬 장식함으로써 상장의 권위와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이 때 관립어학교는 1891년 일어학교, 1894년 영어학교, 1895년 법어학교, 1896년 아어학교, 1897년 한어학교, 1898년 덕어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각각 다른 장소에 설치됨으로써 한 곳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5] 따라서 1907년 관립한성외국어학교로 통합되었는데,[16] 이 상장은 1905년에 수여되었으므로 통합하기전 관립어학교장의 이름으로 수여되었다.

2) 관립보통학교 상장

광무 11년(1907) 관립매동보통학교에서 신기범은 2가지 상장을 받았는데, 상장 종류는 각각 근업(勤業)[17]과 학력우등[18]이었다. 이 상장의 외형적인 형태는 붉은 선으로 테두리를 하고 있으며, 세로 13칸으로 구분된 종이 위에 수상 내용을 국한문 혼용으로 기록하고 있다. 상장 구성은 발급호수와 제목, 수상자, 수상 내용, 상품목

15) 독립신문, 1898. 7. 8.

16) 한상진, 「관제기(1894-1906) 관립 외국어학교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7, p. 57.

17) 상장내용: 右는 本學其間에 勤業ᄒᆞ얏기 左記한 賞品을 授與홈 洋紙 細筆 眞墨 鉛筆

18) 상장내용: 右는 第一學期에 學力이 優等ᄒᆞ얏기 左記한 賞品을 授與홈 紙 筆 墨 鉛筆

록, 수여 연도로 구성되었다.

〈표 4〉 대한제국시기 매동보통학교 상장

연도	제목	수상자	수여자	비고
光武11(1907) 7.10	賞狀	第肆學級 愼箕範	관립매동보통학교장	붉은색 테두리세로13칸 국한문혼용
光武11(1907) 7.10	賞狀	第5號 第肆學年 愼箕範		

내용을 볼 때 이 상장은 매동보통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며 학기중 성실한 태도와 학력 우등에 대해 각각 시상하고 있다. 이와같은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시상은 이후 학교에서 시상하는 주요 영역이 된다. 이때 상의 수상 시기가 7월이기 때문에 한 학기가 7월에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립 매동보통학교는 1895년 소학교령에 의하여 한성 장동에 관립 장동소학교로 개교하였다가 매동으로 옮겨서 매동소학교로 개칭하였고, 이후 1906년 매동보통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08년 제1회 졸업생 16명을 배출하였다.[19] 이 시기 통감부는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수업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시켰다.[20] 따라서 이 상장은 신기범이 4학년에 받은 상장이므로 마지막 학년 1학기에 받은 상장임을 알 수 있다.

3) 기타 상장

대한제국 시기 다양한 영역에서 근대적인 내용을 교육하기 위한

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매동초등학교편.
20) 金英宇·皮貞晩, 『最新 韓國敎育史 硏究』, 서울: 교육과학사, 1995, p. 276.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측량과 어학은 이 시기에 매우 필요한 기술이었다. 1909년(융희3) 함명측량학교장이 정윤덕에게 수여한 상장은 흰색 바탕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고 있으며, 오른쪽부터 국한문 혼용으로 세로쓰기를 하고 있다. 오른쪽 위 끝 수여자 이름 위에 직인이 있다.

상장의 구성은 먼저 발급호수와 포증(褒証)이란 제목이 제시되어 있고, 수상자 이름, 시상 내용, 수여 년도, 수여 학교와 학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이한 것은 수여 학교장의 이름과 아울러 강사 이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5〉 대한제국시기 측량학교 상장

연도	제목	수상자	내용	수여자
隆熙3(1909) 2月 日	第11號 褒証	鄭潤德	右人이 本講習所에셔 學業이 優等이기 特히 褒奬홈	咸明測量 學校長鄭台元 講師 車徐榮

이 상장을 수여한 함명측량학교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토지측량이라는 점에서 측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 설립된 측량학교에는 1908년 수진측량학교, 1908년 영돈측량학교 등이 있다.[21]

1910년(융희4) 윤선구가 받은 상장은 일어전습소 교사가 수여한 상장인데, 흰색 종이에 수기로 기록된 형태이다. 상장의 구성은 제목과 수상자 이름, 수상 내용, 수상 년도, 수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상장은 오른쪽부터 세로쓰기하고 있으며, 한문 일어 혼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직인은 연대를 표시하는 부분에 찍혔고, 상장을 수여하는 주체는 일어전습소 일본인 교사의 이름으로 수여되었다.

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매동초등학교편.

〈표 6〉 대한제국시기 일어전습소 상장

연도	제목	수상자	내용	수여자
隆熙4(1910) 7月1日	賞狀	尹璿求	日語月終試驗成績優等之賞 トシテ付與ス	日語專習所敎師 古賀猪久太

이 상장은 일어전습소에서 매월 마지막에 시험을 치고 성적이 우수하여 시상한다는 내용이다. 상장 기록은 이전 시기 상장이 국한문 혼용으로 기록되었던 것과는 달리 한문 일어 혼용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상장이 일어전습소에서 수여되었다는 점과 아울러 1910년 당시 상황이 이미 일본식민지 상황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장 기록에 사용되는 언어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측량학교와 일어전습소는 공식적인 학교라기보다는 사설강습소의 형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상장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양이나 장식이 없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학교 기관과 다르다. 그런데도 이러한 기관에서 상장을 수여함으로 학습자의 학습 의욕과 교육기관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3. 일제강점기 대정 연간 상장

대정연간 상장을 검토할 때 대한제국 시기 상장을 답습하고 있지만, 상장의 종류와 내용이 정형화되었고, 상장의 장식에서 태극문양이 나타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 명칭과 상장을 서술하는 언어가 식민지 교육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1) 학업 우등상장

(1) 공립보통학교 상장

대정 연간 학업 및 성적 우등에 대한 보통학교 상장의 구성은 제목, 수상자, 시상 내용, 시상 연도, 시상 기관이나 직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은 '상장(賞狀)' 혹은 '우등상장(優等賞狀)'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기록 방법은 오른쪽부터 세로쓰기하고 있으며 한문과 일어를 혼용하고 있다. 상장 양식은 붉은색 굵은 테두리와 일곱 칸으로 구분된 양식에 내용을 수기하는 예도 있었고, 흰색 바탕에 수기로 내용을 기록하는 예도 있었다.

〈표 7〉 대정연간 공립보통학교 상장

제목	일시	수상자	기관	특징 및 비고
優等賞狀	大正4(1915) 3.25	제3학년 鄭○○	연산공립보통학교	한문일어 혼용 우측상단 직인
賞狀	大正14(1925) 3.20	제3학년 甲組李○○	홍성공립보통학교	인쇄양식 수기 교명 뒤 직인
賞狀	大正14(1925) 3.23	第貳學年 鄭南乙	성산공립보통학교	인쇄양식 수기 교명 뒤 직인
賞狀	大正15(1926) 3.24	제6학년 鄭○○	언양공립보통학교	한문일어 혼용 연도에 직인

보통학교 우등상 내용은 일정 기간 학업과 아울러 조행을 평가하고 시상하고 있으며, 시상 단위는 학년 간이었고 시상 기간을 표시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 시상하는 시기가 3월 말이라는 사실은 보통학교 한 학기가 3월 말에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상 내용을 표현하는 단어는 조행 단정, 학업 우등, 품행 방정 등이었

다.[22] 이때 상장은 일본천황 연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록은 일본어였다. 이와 같은 점은 학업성적과 학업태도에 대한 상장이지만, 일본 식민지 교육을 잘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2) 고등보통학교 및 사립학교 상장

고등보통학교는 일제의 본격적인 식민통치와 더불어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고등보통학교 설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이다. 고등보통학교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에 진학하기 때문에 중등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교육령에 따르면 고등보통학교 입학 자격은 12세 이상 남자로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소지자로 규정하였고,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였다.[23]

고등보통학교의 상장 형식은 보통학교의 상장 형식과 유사하였다. 상장 구성은 제목, 수상자, 수상 내용, 연도, 기관, 직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장 제목은 우등상장, 상장으로 표시하고 있다. 수상자에 대한 기록은 이름과 학년 및 소속을 모두 표시하는 예도 있고 이름과 학년 혹은 이름만 기록하는 예도 있었다. 상을 수여하는 기관 이름은 학교명을 표시하기도 하고 교장의 이름까지 기록하는 예도 있었다.

---

22) 대정4년 연산공립보통학교 상장 내용: 右者操行端正學業優等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대정14년 홍성공립보통학교 상장 내용: 右者本學年間 操行優良ニ付三等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대정14년 성산공립보통학교 상장 내용: 右者品行方正學業優等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 대정15년 언양공립보통학교 상장 내용: 右者本學年間 00優等操行嘉良 ニ付之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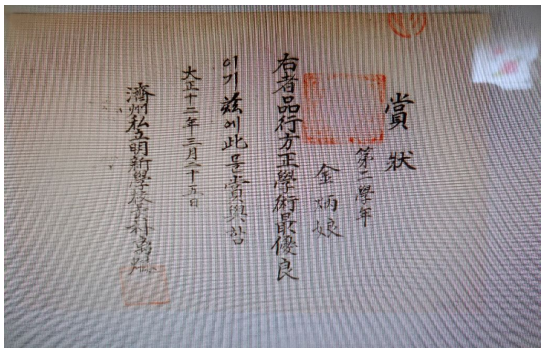
2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등보통학교.

〈표 8〉 대정연간 사립학교 상장

제목	수여 시기	수상자	기관	특징
優等賞狀	大正3(1914) 3.28	崔00	교명 없음	한문 한글 직인
優等賞狀	大正5(1916) 3.26	본과제1學年 崔00	사립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한문 일어 직인
優等賞狀	大正7(1918) 3.22	본과제3學年 崔貞淑		한문 일어 직인
賞狀	大正11(1922) 3.25	崔季淑	사립명신학교장	한문 일어 직인
賞狀	大正12(1923) 3.25	第三學年 崔季淑	제주사립명신학교장 박○○	한문 한글 직인

내용은 대정 연간 대부분 상장이 한문과 일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대정 3년과 대정 12년 상장에서 한글 한문 혼용으로 기록하는 예도 있었다. 이는 일제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여 수상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표현은 '성적 양호', '품행 방정 학력 우등' '학력 우수' 등이었다.[24]

〈상장 1〉 제주사립명신학교 상장



24) 대정연간 고등보통학교 및 사립학교 상장 내용 : "右ヒ 成績이 良好함으로 賞品을 授與함", "右者品行方正學力優等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右者品行方正學力優等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右者品行方正學力優秀 ニ付 仍テ之テ賞ス", "右者品行方正學力優等이기 茲에 此를 授與함".

2) 개근 및 정근 상장

대정 연간 출석과 학습 태도에 대한 상은 정근상과 개근상이 있다. 이와 같은 상은 등교와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개근은 모든 학습에 참여하였을 때 주는 상이고, 정근은 개근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습 태도를 장려하는 상이다. 정근상과 개근상의 상장 용지는 아무 장식 없는 용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붉은색 테두리와 세로줄이 인쇄된 용지도 있었다.

상장 구성은 제목, 수상자, 수상 내용, 수여 연도, 수여 기관, 직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장 제목은 그냥 상장이라고 표시하고 시상내용에서 상장 성격을 표시하는 예도 있고, 제목에 정근 상장 혹은 개근 상장이라고 표시하는 것도 있었다. 수상자는 학년과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때에 따라서 등수를 기록하는 예도 있고, 단순히 이름만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9〉 대정연간 공립보통학교 정근 및 개근 상장

제목	연도	수상자	기관	특징/비고
精勤賞狀	大正4(1915) 3.25	제3학년 정우용	연산공립 보통학교	한문일어 혼용 우측상단 직인
皆勤賞狀	大正5(1916) 3.22	제4학년 일등상 정우용	연산공립 보통학교	한문일어 혼용 연도아래 직인
精勤賞	大正14(1925) 3.20	申英植	조치원공립 보통학교	초록색 테두리
賞狀	大正12(1923) 3.24	제3학년 권세용	언양공립 보통학교	한문일어 혼용
賞狀	大正15(1926) 3.25	第2學年 윤여창	노성공립 보통학교	붉은색 테두리 8칸 세로줄, 한문일어수기
賞狀	大正15(1926) 3.23日	제4학년 三等賞 李鍾悳	홍성공립 보통학교	붉은색 테두리 8칸세로줄

상장 내용 기록은 한문과 일어를 혼용하는 방식이고 세로쓰기 방식이다. 시상 내용은 일정 기간 개근이나 정근한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데, 본 학년 간, 3년간 등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시상 내용을 서술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는 '과업정려', '정려', '개근', '정근' 혹은 '무결석' 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25]

3) 특별상

대정 연간에 특별한 내용을 시상하는 상장 제목을 살펴보면 포장 혹은 상장이라는 제목으로 시상되었다. 특별상장 구성도 제목과 수상자, 수상 내용, 수상 연도 및 수여 기관과 직인으로 구성되었다. 수상자에 대한 기록은 학년과 이름, 혹은 학교와 학년 이름을 기록하였다. 상장의 기록방식은 한문과 일어 혼용으로 세로쓰기를 하고 있다.

〈표 10〉 대정연간 특별상

제목	연도	수상자	기관	비고
褒狀	大正5(1916) 3.22	제4학년 정우용	연산공립 보통학교	한문일어 우측직인
賞狀	大正13(1924) 10.31	제4학년 장동현	신우공립 보통학교장	한문일어 수기
褒狀	大正15(1926) 3.24	언양공립보통학교 제6학년정우용	경상남도 지사	금색테두리 한문일어 수기

25) 대정연간 개근상 혹은 정근상 내용: "右者 本學年間 課業精勵 의 茲ニ之テ賞ス", "右者 本學年間 皆勤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右本學年 共 滿 參年間 精勤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右者00000ニ付茲ニ之テ表彰ス", "右者 本學年間 皆勤 ニ付茲ニ之テ表彰ス", "右者精勤 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右者本學年間無缺席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특별상은 4년간 과업과 정근에 2등으로 선정하여 상을 주는 일도 있었고,[26] 노동 및 근로에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시상하기도 하였다.[27] 大正 15년 언양공립보통학교 상장은 경상남도지사가 보통학교 6학년 학생의 행실과 학습 성과를 시상하는 것이었다. 이 상장은 금색 테두리로 장식하고 있으며, 상품은 전과사전이었다.[28]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학교에서 시상하는 내용은 일반 교과나 학업 태도뿐만 아니라 노동과 근로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을 시상함으로써 학생들의 노동을 격려하고 있다. 이 상이 보통학교 학생에 대한 시상임을 고려한다면 일제강점기 학교에서 보통 학생들의 노동력까지 동원하려고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상남도지사가 수여한 상장 내용에서 조행 선량, 학업 우수라는 표현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 상은 아동장학자금사업규정에 따라 부상으로 사전을 주고 있다.

4. 일제강점기 소화 연간 상장

일제강점기 소화 연간에 상장을 수여한 기관은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 학교, 서당, 기타 교육기관 등이 있으며,[29]

---

26) 右ハ 在學4年間課業ニ 勉勵シ 且 ツ精勤ニ 付特別貳等賞 テ 授與シ 茲ニ之テ表彰ス.

27) 右 本校敎養 主旨テ 體シ 自テ 率先シテ 勞動ニ服シ他生ニ勤勞範示 如方訓育眞諦 楫認依 シ茲ニ之テ表彰ス.

28) 右者 操行善良學術優秀 他模範의 慶南道地方0 兒童獎學資金事業規定第一0의 全科祀典一冊 贈與シ 茲ニ之テ表彰ス.

29) 심상소학교는 1938년 3차조선교육령을 개정공포하여 일본과 조선의 초등교육기관을 통일하고자 조선의 보통학교까지 심상소학교로 개칭하였다. 심상소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이었으며, 이후 1941년 모든 심상소학교를 국민 학교로 개칭하였다.

상장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우등상, 개근 및 정근상, 특별상, 기타 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상장의 종류는 대정 연간의 상장 종류에서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상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학업우등 상장

(1) 공립보통학교

보통학교 상장의 형식은 대정 연간 상장과 유사하다. 다만 양식이 더 정형화되어 붉은 테두리와 세로 8칸을 구분하여 한문과 일어를 혼용하고 있다. 상장 구성은 제목, 수상자, 수상 내용, 수상 연도, 기관명, 직인으로 구성된다.

〈표 10〉 소화 연간 보통학교 우등상장

제목	년도	수상자	기관	비고
賞狀	昭和2 (1927) 3.19	第四學年 李石姬	마포공립보통학교	붉은색테두리, 8칸 세로줄, 인쇄 형식에 수기, 우측 상단 직인
優等賞狀	昭和3 (1928) 3.24	第一學年 李秉曦	梅田公立普通學校	
賞狀	昭和6 (1931) 3.23	第四學年 安準錫	오수공립보통學校	
賞狀	昭和12 (1937) 3.20	第六學年 朴貞濟	이방공립보통학교	붉은색 테두리 8칸 세로줄, 한문일어 혼용, 학교명하단 직인
賞狀	昭和13 (1938) 3.25	第四學年 송 상 규	금마공립 보통學校	
賞狀	昭和18 (1943) 3.20	제5학년 城本基協	상촌공립 보통학교	

제목은 상장이 가장 일반적인 제목이고, 이외에 우등상장, 포장으로 표시한 예도 있었다. 수상자는 학년과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상장 내용은 성적 우등, 주행 선량 학업 우등, 품행 방정 학업 우등, 학력 우등 품행 방정, 학업 가량, 성적 우량 등을 표현하여 학업과 품행을 연결하여 내용을 기록하였다.[30] 일부 상장의 경우 교과 성적 우등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장은 학업과 품행의 우수함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우등상의 경우 '품행 방정 학업 우등'이라는 표현이 전형적인 표현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⑵ 심상소학교 및 국민 학교 상장

3차 조선교육령 이후 공립보통학교라는 명칭 대신 심상소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상장에도 심상소학교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하지만 심상소학교는 다시 국민 학교로 이름이 바뀌게 됨으로써 상장에서도 국민 학교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

이 시기 심상소학교 및 국민 학교 상장 형식은 붉은 테두리와 세로 8칸을 구분하여 한문과 일어를 혼용하여 세로쓰기를 하였다. 구성은 제목, 수상자, 수상 내용, 수상 연도, 기관명, 직인으로 구성된다. 제목은 상장과 포장이라는 이름이 아울러 사용되었다. 수상자는 학년과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고, 수상자의 이름은 1940년 이후 일본식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전시 교육체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0) 소화 연간 공립보통학교의 상장 내용 : "右者成績優等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右者操行善良學業優等ニ付茲ニ之テ賞ス", "右者品行方正學業優等 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右者學力優等品行方正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右者學業佳良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右者成績優良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표 11〉 소화연간 심상소학교 및 국민학교 우등 상장

제목	년도	수상자	기관	비고
賞狀	昭和16 (1941) 3.24	第三學年 岩村建兒	천안 榮町公立尋常 小學校	붉은 테두리 8칸세로줄
賞狀	昭和17 (1942) 3.25	第1學年 大原淑南	三養公立 尋常小學校	사방 꽃무늬장식
褒狀	昭和17 (1942) 3.25	第一學年 平林勝萬	綾州公立 國民學校	붉은 테두리 8칸 세로줄,
褒狀	昭和19 (1944) 3.25	第三學年 平林勝萬	綾州公立 國民學校	붉은 테두리 8칸 세로줄.
賞狀	昭和19 (1944) 3.25	第五學年 金光在源	珠山公立 國民學校	붉은 테두리 8칸 세로줄

이 시기 상장의 내용은 학술 우등, 학력 우등이란 용어로 교과 성적에 대해 시장하고 있으며, 우등상을 주는 학교 규정에 따라 상을 준다는 내용을 기록하는 예도 있다.[31]

(3) 기타 학교 상장

소화 연간 상장 가운데 고등보통학교, 사립매산학교, 공립농업학교, 죽수서당, 공과학교, 측량기술원양성소 등 다양한 학교에서 수여된 상장이 있다. 각종 학교에서 수여한 상장의 형식은 붉은색 테두리와 세로 8칸을 구분하여 한문과 일어를 혼용하여 세로쓰기 방식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테두리 장식 없이 흰 바탕에 수기로 작성된 상장이 있었고, 검은색 테두리를 한 경우도 있었다. 상장 구성은 제목, 수상자, 수상 내용, 수상 연도, 기관

31) 소화연간 심상소학교와 국민 학교 상장 내용: “右者學術優等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優等賞 本校ノ 定ムル賞與規程ニ依リ之テ授與ス”, “右者學力優等 ニ付茲ニ之テ賞ス”.

명, 직인으로 구성된다. 제목은 대부분 상장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 수상자는 학년과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표 12〉 소화연간 각종학교 상장

제목	년도	수상자	기관	비고
賞狀	昭和10 (1935) 1.26	成煥洙	관인측량 기술원양성소장	테두리 장식, 수기 소장 從七位勳五等 御健次郎)
賞狀	昭和12 (1937) 3.30	第5學年 이용규	청주공립 고등보통학교	우측상단 상품표시 교장 從五位勳五等 泉政次郎
賞狀	昭和12 (1937) 3.5	고등과 第2學年 김우성	사립순천 매산학교장	한문일어수기
賞狀	昭和13 (1938) 3.9	第5學年 安海春	전주공립 농업學校	붉은색 테두리, 8칸세로줄, 인쇄형식에 수기
賞狀	昭和14 (1939) 3.24	第1學年 林勝萬	綾州竹樹 書堂	붉은 색 테두리 8칸 세로줄,
賞狀	昭和15 (1940) 3.30	機械科 玄彩文	大版工科 學校	검은 테두리 장식 일본공과학교 상장

상장 내용은 품행 방정 성적 우량, 조행 선량 학력 우등, 학업 최우등, 품행 방정 학술우등, 학술 우등, 품행 방정 학업 우등 등과 같이 품행과 학력을 병행하여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 순천매산학교와 능주죽수서당의 경우에는 품행에 대한 언급 없이 학업우등 사실만 기록하고 있다.[32] 당시 대판공과학교의 상장의 형식과 내용은 조선의 각종 학교에서 수여한 상장과 유사하였고, 내용에서도 품행 방정 학업 우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33] 따라

32) 소화연간 기타 교육기관의 상장 내용: “右者在學中品行方正成績優良ニ付賞狀竝ニ賞品テ授與ス”, “硯箱 壹個 右者操行善良學力優等ニ付茲ニ之テ賞ス”, “右者學業最優等ニ付茲ニ之テ賞ス”, “右者品行方正學術優等 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右者學術優等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서 이 시기 일본의 학교와 조선의 학교 상장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개근 및 정근 상장

소화연간 각종 학교에서 수여한 개근상과 정근상의 형식은 한문과 일어를 혼용한 가로쓰기를 하고 있으며, 인쇄된 형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상장은 붉은 테두리 장식과 세로줄 8칸으로 구분된 종이에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근과 개근 상장의 구성은 다른 상장과 마찬가지로 제목, 수상자, 수상 내용, 연도, 기관, 직인으로 구성되었다. 제목은 대부분 상장이었고, 수상자의 학년과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표 13〉 소화연간 개근 및 정근 상장

제목	연도	수상자	기관	비고
賞狀	昭和3 (1928) 3.17	第一學年 鄭0鉉	全州公立高等普通學校	검은 테두리 양식에 수기
賞狀	昭和3 (1928) 3.24	제2학년 정우용	연산공립보통학교	한문일어혼용 상단 학교 직인
賞狀 第八號	昭和6 (1931) 3.11	第五學年 崔璋林	부산제이공립상업學校	내용 수기 상품 기록
賞狀	昭和8 (1933) 3.6	제5학년 이종덕	경기제이 공립고등보통학교	제43호 흰색바탕수기
賞狀	昭和13 (1938) 3.24	第四學年 ○○○	대판시북은 가도심상 고등소학교	인쇄양식수기 일본학교
賞狀	昭和14 (1939) 3.31	第二學年 延元熙	신탄진 금봉공립尋常小學校	붉은 테두리 8칸 세로줄

33) 대판공과학교 상장 내용 : “右者本學年間品行方正學業優等ニ付 頭書之通リ 賞與ス 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賞狀	昭和15 (1940) 3.18	第6學年 ○○○	대판시중본제사 심상소학교	인쇄양식수기 일본학교
賞狀	昭和16 (1941) 3.25	第六學年 光田熙子	淸南學院	붉은 테두리, 8칸 세로줄, 양식에 수기

개근과 정근 상장 내용의 전형적인 표현은 본 학년 간, 본 학년 중 정근 혹은 개근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품행과 교과성적과 아울러 출석내용을 기록하는 예도 있다.[34] 이 때 품행 방정, 조행선량, 학력우등, 개근 등의 내용을 함께 시상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우등상과 개근상을 동시에 시상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41년 청남학원에서 수여한 상장에는 1일 결석하여 정근상을 준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35]

3) 품행 관련 상장

일제강점기 소화 연간 상장에는 우등상장이나 개근 상장 이외에 특별히 학생 품행에 대한 상장이 수여되었다. 품행 관련 상장은 주로 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공립국민학교에서 수여되었고, 수상자의 이름은 1941년 소화 16년 이후에는 일본식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상장은 붉은색 테두리와 세로 8칸에 한자와 일본어 혼용으로 세로쓰기를 하고 있다.

---

34) 1928년 연산공립보통학교 2학년 정우용의 상장 내용: “右者本學年間 品行方正學力優等皆勤ニ付 第一等賞品テ授與シ玆ニ之テ表彰ス”, 1938년 표선공립학교 보습과 제1학년 오석천의 상장 내용: “右者操行善良學業優等精勤ニ付賞品 授與玆ニ之テ表彰ス”

35) “右者二ヶ年間連續皆勤ニ付賞品テ授與シ玆ニ之テ表彰ス, 右者本學年中一日ノ缺席 ナク課業ニ精勵 セリ仍テ玆ニ之テ賞ス”

〈표 14〉 소화연간 품행 상장

제목	연도	수상자	내용	기관
賞狀	昭和6 (1931)3.24	제6학년 이병찬	右者操行佳良 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 テ表彰ス	안성공립 보통학교
賞狀	昭和13 (1938) 3.31	第五學年 金哲鉉	右者操行善良ニ付 賞品テ 授與シ 茲ニ之テ賞ス	天安公立 普通學校
賞狀	昭和14 (1939)3.25	第三學年 李在玉	右者操行善良ニ付 茲ニ之テ賞ス	兼白公立 尋常小學校
賞狀	昭和15 (1940)3.25	第四學年 李在玉	右者品行方正ニ付 賞品テ 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兼白公立 尋常小學校
賞狀	昭和16 (1941) 3.25	弟四學年 宜川文吉	右者品行方正 ニ付賞品テ 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利川第一 共立尋常 小學校
賞狀	昭和17 (1942)3.25	第五學年 井上性煥	右者本學年間皇國ノ道 テ修練シ成績 優良セリ依ッテ茲 ニ之テ賞ス	대연공립 국민학교

학생 품행 관련 상장의 형식은 기본적인 상장과 유사한 형식이며, 상장 구성은 제목, 수상자, 수상내용, 수상 연도, 기관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시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이나 출석에 대한 언급이 없고 조행과 품행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시상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주로 표현하는 단어는 조행 가량, 조행 선량, 품행 방정, 황국 도의 수련 등이다. 따라서 이 시기 교과와 출석 이외에 학생 품행에 대해 시상을 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해 식민지에 적합한 품성을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특별 활동 상장

소화 연간에 체육활동과 관련된 상장은 100m 달리기, 장애물경주, 도보 경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장이 있다. 상장 구성은 일반적인 상장과 유사하고, 장식은 체육활동과 관련된 트로피나 월계관으로 장식되었다. 체육활동 상장 내용에는 종목과 성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한문과 일어를 혼용하고 있다.

〈표 15〉 소화연간 체육활동 상장

제목	연도	수상자	내용	비고
賞狀	昭和8 (1933) 10. 9	윤여창	100米 1等 본교제9회體育大會 於成績優良 仍 頭書 通 賞狀テ授與ス	공주공립고등 보통학교교우 회장 증부신오 한문일어, 인쇄양식수기
賞狀	昭和13 (1938)	第1學年 김태호	추계대운동회제1회 장애물경주 제삼등	부산초량공립 심상소학교 월계관문양 이름수기
賞狀	昭和14 (1939)	第2學年 김태호	추계대운동회제2회 도보경주 제삼등	

기타 특별 상장의 형식은 일반적인 상장의 형식과 비슷한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41년 이후 상장은 수상자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별상장 중에는 일본 황태자가 하사한 교육장려금을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장, 실습작업 노동에 대한 포상, 국방헌금, 채집 근로활동 등에 대해서 시상하는 상장 등이 있다. 특별상장의 내용은 일반적인 학업 우등상이나 개근상과 달리 시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표 16〉 소화연간 특별활동 상장

제목	연도	수상자	기관	비고
賞狀 第貳號	昭和6(1931) 3.11	第五學年 崔璋林	부산제이공립 상업학교	수기, 상품(廣辭林壹冊)기록
褒狀	昭和13(1938) 3.25	第六學年 김혜옥	애월공립 보통학교	붉은 테두리, 8칸 세로수기, 한문 일어
賞狀	昭和16(1941) 3.25	第一學年 谷山明男	신창공립 심상소학교	붉은 테두리, 8칸 세로줄 한문 일어
賞狀	昭和19(1944) 12.30	第2學年 제4조 水山正杓	제주북공립 국민학교	한문일어수기

1931년 부산 제이공립상업학교에서 수여한 상장은 품행 방정 학업 우등 사실에 대해 시상하면서 명치40년(1907) 일본 황태자 조선 방문 때 하사한 교육장려금을 아울러 시상하고 있다.[36] 1938년 애월공립보통학교와 1944년 제주북공립초등학교 에서 수여한 상장은 실습작업 및 노동에 대해 시장하고 있다.[37] 특히 1941년 신창 공립심상소학교에서 수여한 상은 국방헌금에 대한한 내용을 시상하고 있다.[38] 이와 같은 상장은 당시 식민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상장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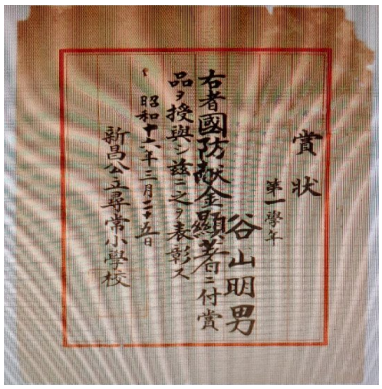
---

36) “右者品行方正學業優等 ニ付 明治四十年十月 皇太子殿下 朝鮮へ 行啓ノトキ 御下賜ヤラレタル 教育奬勵金ニテ 頭書ノ 通 リ賞與ス”

37) 1938년 애월공립보통학교 포상 내용 “右者本學年常 率先躬行實習作業等從事 勤勞好愛 範 垂付茲ニ之テ賞ス”, 1944년 제주북공립초등학교 시상 내용: “37等賞 右者 甘藷葉柄採集 勤勞成績優良 ニ付賞品テ授與シ茲ニ之テ表彰ス”

38) 1941년 신창공립심상소학교 시상 내용: “右者 國防獻金 顯著 ニ付賞品授與茲ニ之テ表彰ス”

〈상장 2〉 소화연간 국방헌금 상장



5) 기타 기관 상장

소화 연간의 상장 가운데 학교 이외 기관에서 수여한 상장이 있다. 예컨대, 동아일보사, 충남도지사, 학습지도연구회 등에서 상장을 수여한 경우이다.

〈표 17〉 소화연간 기타 기관 상장

제목	연도	수상자	기관	비고
褒賞狀	昭和13(1938) 6.19	경성중동학교 김충현	주식회사동아 일보사장 백관수	봉황테두리 장식
勉强賞	昭和15(1940) 6.10	동물금소학교심상 과제5학년이종걸 殿	학습지도 연구회	테두리장식, 한문일어, 고문, 직책 일본인 명단
體育狀	昭和15(1940) 7.10	동물금소학교 심상 과제5학년이종걸 殿	학습지도 연구회	

먼저 1938년(소화 13) 동아일보사에서 수여한 상장은 제7회 전조선 학생작품 전람회 습자부 특상이다. 이 상장은 봉황무늬로 테

두리를 장식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학교 상장보다 더 화려한 외형이다. 상장의 제목은 포상장이며, 수상자의 학교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상장의 내용은 동아일보사 주최 제7회 전조선 남녀학생 작품전람회 중등 습자부에서 특상이 되어 포상한다는 내용이다.[39] 수여자는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장 백관수이다.

다음은 학습지도연구회에서 1940년(소화 15)에 수여한 '면강상'과 '체육상'이다. 학습지도연구회는 여러 명의 고문이 있는데, 소학관 사장, 동경여자고등사범학교교수, 동경고등사범학교 부속학교 주사, 광도고등사범학교부속소학교 주사, 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 부속소학교 주사 등의 직책과 이름 및 도장을 찍고 있다. 이 단체에서 수여한 상장의 제목은 우수학업 및 선량조행에 대한 상장은 '면강상(勉强賞)' 이었고, 신체 연마 및 건강하여 개근한 내용에 대한 상장은 '체육상(體育狀)'이라는 제목으로 수여되었다.

이와 같은 상들은 학교 이외에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시상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상들이다. 특히 학습지도연구회라는 단체는 일본 사범학교교수, 부속학교 주사, 소학관사장 등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일본인들의 구체적인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

5. 결론

상장은 인간이 사회조직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을 결속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의 목표를 강조하고 교육목표에 적극적인 태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

39) 1938년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서 수여하는 상장 내용: "本社主催第七會全朝鮮男女學生作品展覽會中等習字部에 右者가 特賞이 되엇기 茲에 褒賞함"

따라서 상장은 대부분 사회에서 그 가치와 필요성이 당연시되었다. 하지만 상장이 가치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상장을 수여하는 기관이나 학교가 바람직한 교육목표와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일제강점기의 학교 교육이 식민지 교육목표와 그에 적합한 행동을 길러내기 위해 수행되었다면 상장은 식민지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제국시기의 상장은 대한제국 시기 교육상황을 반영하고, 일제 일제강점기 상장은 일제 식민지 교육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1) 상장 형식과 구성

일제강점기 상장은 대한제국 시기 상장 형식과 유사한 형태로 제목, 수상자, 수상내용, 연도, 기관, 직인으로 구성되었다. 상장은 일제강점기 대부분 시기에서 테두리 장식이 일반적이었고, 세로쓰기 방식을 택하였다. 상장 형식은 대한제국 시기에 이미 일본 통감부의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후 대정 연간이나 소화 연간 상장 형식도 대한제국 시기 상장의 형식과 유사하였다. 다만 대한제국시기 상장은 상장 장식에 태극문양을 사용하였지만, 일제강점기에는 태극문양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처럼 상장은 특정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서로 상장을 수여함으로써 식민지 학교 교육의 영향력을 더욱 깊이 각인시키고 확산시킬 방안으로 사용하였다. 물론 상장은 받는 학생으로서는 사기와 의욕이 생기는 일이지만 일제강점기 교육 특성상 상장은 식민지 교육을 공고하게 하는 일에 일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일제강점기 상장의 형식은 해방 이후 한국의 학교 상장의 형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으며, 비슷한 형식으로 상장이 사용되었다.

2) 상장 내용의 특징

상장을 서술하는 언어는 대한제국 시기에는 국한문 혼용이었지만, 일제강점기 대정 연간, 소화 연간에는 한문 일어 혼용이었다. 이처럼 서술하는 언어가 국한문에서 한문 일어 혼용으로 바뀌는 것이 일제강점기 교육이 지배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상을 받는 학생의 이름은 1940년 이전 상장에는 한문으로 기록되었지만, 1940년 이후 상장에는 일본식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상장의 내용기록에서도 시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상장 내용은 우등상의 경우 학업 우등, 학술 우량, 성적 우수 등과 동시에 품행 방정, 조행 가량 등과 같이 성적과 품행을 동시에 시상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교과 성적과 품행은 반드시 일치하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전반적인 우등상의 내용에서 교과와 품행을 연결하고 있다. 이는 은연중 교과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품행도 단정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것이며, 해방 이후 상장 내용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일제강점기 개근상과 정근상은 성실 및 근면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학교 교육에 참여를 장려하고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일제강점기 후반에는 각종 특별상이 많았다. 특히 품행, 근로, 국방헌금 등과 같은 상장이 이런 상장에 속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별상이 일제강점기 후반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시 국제 전쟁에서 일본의 어려운 상황이 식민지 학교 교육과 상장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상장은 형식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상황을 반영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장이 수여되는 환경과 교육의 성격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나타낸다. 더욱이 일제강점기 상장의 형식과 내용이 해방 이후 학교에서 유사한 형태로 답습되었

기 때문에 상장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역사적인 검토와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상장과 상황

지금까지 검토한 상장은 상황과 밀접한 관계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대한제국시기의 상장은 대한제국시기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태극문양이나, 대한제국시기에 필요한 근대적 학습 내용에 대한 상장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상장은 일제 강점기와 식민 교육에 필요한 특성을 시상한다. 더구나 일제강점기 후반 태평양전쟁시기에는 국방헌금과 자원수집을 위한 노동, 근로 등에 대한 상장이 이를 반영한다. 이는 학교교육의 식민지배 관행에서 전시동원, 병참기지와 식민지 수탈 등의 관행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장은 상장이 수여되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민지 상태에서 학교교육은 식민 지배를 당연하게 강조하는 상장을 수여함으로써 식민지배에 충실한 학생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장려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장은 푸코가 분석한 규율권력과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유리한 가치와 이념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장은 절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내용과 형식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를 상장이 수여되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김명숙, 「일제강점기 학적부 양식의 변화로 본 식민지 교육의 실상–동덕여고 학적부 1914–1945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87, 2017, pp. 125–157.

金英宇 · 皮貞晩, 『最新 韓國敎育史 硏究』, 서울: 교육과학사, 1995.

김소륜, 「일제강점기 초등교육과 '국민 만들기'–제3·4차 조선교육령기에 발행된 『普通校朝鮮語讀本』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0, 2011, pp. 173–201.

김재기, 『현행 초등학교 시상제도의 실태분석』,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미셸 푸고 저,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2016.

손종현, 『일제 제3차 조선교육령기하 학교 교육의 식민 지배 관행』,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신자토 루리코, 「관립 덕어학교의 한국인 교관들–근대 조선의 독일어 교육사 재고–연구」,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제116집, 2017, pp. 139–186.

이경숙, 「모범인간의 탄생과 유통: 일제시대 학적부 분석」, 『한국교육』34, 2017, pp. 217–239.

이원호, 『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교육의 역사』, 문음사, 2002.

이정행, 「賞讚과 罰에 대한 고찰」,『社會科學硏究』, 광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pp. 225–270.

李海明, 『開化期 敎育改革 硏究』, 서울: 을유문화사, 1991.

전병구, 「일제 말기 일본이 추구한 식민지 인간상–해성심상소학교 학적부 '성행개평'의 분석을 통해」, 『전북사학』52, 2018, pp. 307–388.

정훈택, 「하늘에서 너희의 삯이 큼이라: 신약성경의 삯과 상의 개념 연구」, 『神學指南』, 통권 265, 신학지남사, 2000. pp. 157–168.

차석기, 『한국 민족주의 교육의 연구』, 서울: 진명문화사, 1976.

채휘균, 「개화기 금지된 교과서 내용 분석」, 한국교육철학회, 『敎育哲學』 제26집, 2004, pp. 175–196.

최윤진 · 이용교, 「소년교정기관에서의 상과 벌」, 『한국청소년연구』 제21호, 1995, pp. 81–96.

한용진, 「관제기(1894-1906) 관립 외국어학교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7, pp. 57-81.
허만욱, 『학교 시상의 실태와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2. 기타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독립신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투고일: 2021.11.15 심사완료일: 2021.12.20. 게재확정일: 2021.12.22)

채휘균
소 속: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전자우편: educhk@hanmail.net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of Japanese Colonial Education Revealed in School Prize

Chae, Hwei-k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at the prize of schoo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a means of strengthening educ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research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the prize of schools are investigated and the types of the certification of merit by period are suggested. Second, we analyze the form and composition of the prize and reveal its characteristics. Third, the expressions used in the prize contents are analyzed and the characteristics are revealed.

The result is the form and content of the award must vary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and the nature of education. During the Korean Empire, the language for describing the award was a mixture of Korean, bu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was a mixture of Chinese and Japanese. Moreover, since the format and contents of the priz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followed in a similar form in schools after liberation,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prize. Prize is not an absolute point of view, but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consider various situations.

Key words: Certification of Merit of Schools, The Korean Empire, The Japanese colonial, form and composition, A prize for perfect attendance and A prize for regular attendance